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5-10호 / 7월 20일

중국의 走出去 정책과 독일기업의 인수 현황 (I)

I. 개요

□ FDI 유치국에서 투자국으로 변모

- 2004년 레노보(联想) 그룹의 IBM PC 사업부문 인수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적인 M&A 건에 중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 종전처럼 해외투자의 유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국경제 및 기업의 체질을 개선
→ 향후 세계 M&A 시장의 판도에 엄청난 파장 예상

□ 선진국 중에서 독일의 가족기업 인수 증가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국가 및 대상산업이 다양해진 가운데 특히 독일의 가족기업에 대한 물밑인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 전통적인 기술강국 독일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소규모의 가족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EU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 브랜드 및 유통망의 획득이 목표임.

-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

II. 走出去 정책의 개황

□ 해외진출의 배경

- 합자(合资)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국제화 모색
 -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격화와 비용증가로 수입원 다양화와 비용우위를 유지하기 위함.
 - 중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합자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측과 내수시장에 주력하려는 합자 상대방 측과의 충돌 출현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중국 해외투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방식 중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등이 확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구원이 중국 내 13개 성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기업 해외투자전략 조정에 따라, 해외 현지기업 M&A 방식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 비율이 설문 대상기업의 34.4%를 차지

□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 외환관리 규정개혁 전국으로 확대실시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5월19일자로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안 확대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
 - 기업의 해외투자를 용이케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2002년 이래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안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함. 각지 외환관리부문이 관할구역 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통지에 명시

- 시범안 실시지역이 종전의 24개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해외투자 외환 한도액을 현재의 미화 3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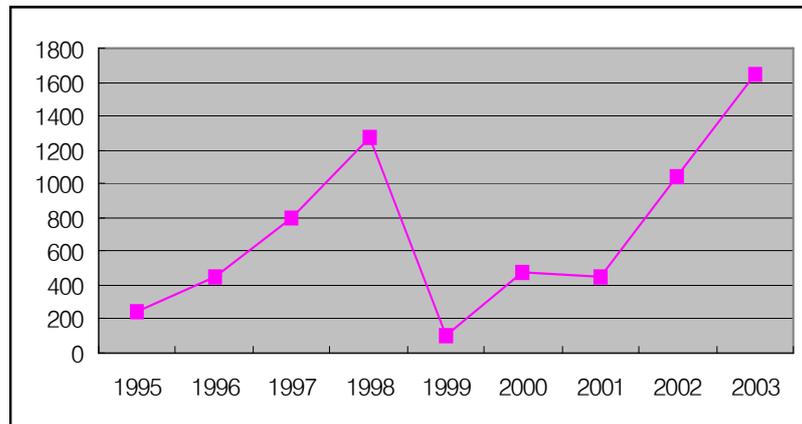
- 정부 차원의 지원 공식표명

- 상무부 등 정부 부문은 경쟁력 있는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해외투자를 향후 정책 및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임을 밝힘.¹⁾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해외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현지 인재를 활용하며, 해외 대기업의 선진경영, 관리경험을 학습하여, 중국에 부족한 기술 및 연구능력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는 한편, 해외 유통망 및 전략자원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해외진출 현황 및 전망

- 1999년 이후 중국의 국제 M&A 투자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그림 1).

<그림 1> 중국의 해외 M&A 규모 (1995~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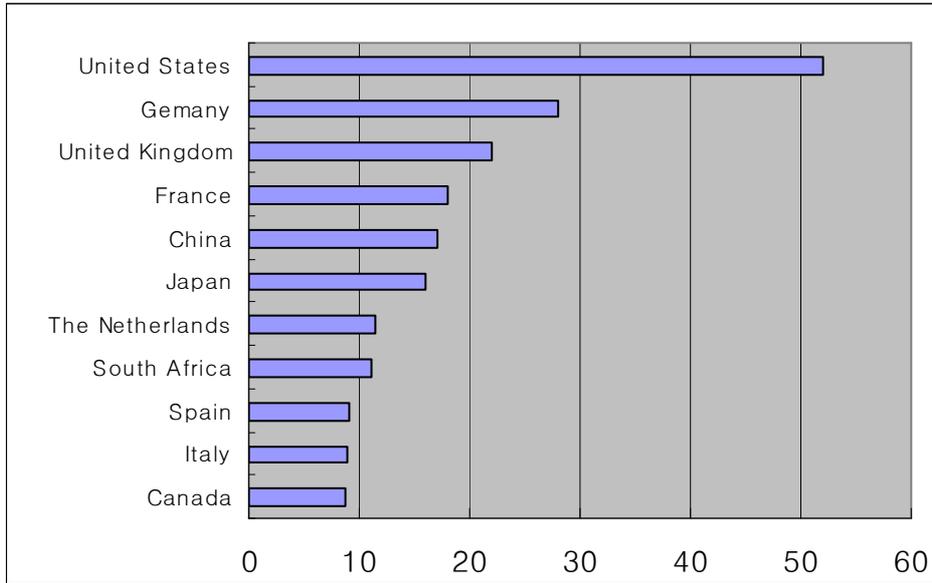
출처: UNCTAD-DITE,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단위: 백만달러

- 세계 최대 FDI 수혜국이었던 중국이 향후 세계적 투자국으로 부상 전망
- UNCTAD가 각국의 투자진흥기관(IPA)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4~2005년 중국이 세계 5위의 FDI 투자국이 될 전망. 개발도상국 IPA들은 중국투자를 세계 2위 수준으로 예상 (그림 2)

<그림 2> 2004~2005 주요 FDI 투자국 전망



출처: UNCTAD-DITE, *Global Investment Prospects Assessment 2004*

□ 해외진출 대상국가의 다양화 및 진출 목적

- 아시아 국가²⁾ 위주의 진출에서 탈피, 2004년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역은 미주, 아시아, 유럽에 걸쳐 다양한 분포를 보임(표 1).

<표 1> 2004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주요사례

투자 중국기업	대상국	비 고
레노보 (联想)	미국	IBM PC사업 인수. 사명개정과 올림픽 파트너프로그램 참여 이래 국제화를 위한 또 한번의 포석으로 풀이됨
화웨이 (华为)	네덜란드/미국	구미 3G 네트워크 수주. 네덜란드 이동통신 업체인 Telfort사의 전국 WCDMA 네트워크와 미국 NTCH의 CDMA2000 네트워크 설비 구축건을 수주
치루이자동차 (奇瑞)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ALADO사와 기술양도 및 수출계약 체결
성다 (盛大)	한국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게임업체인 성다, 한국 액토즈 소프트웨어사의 지분 29%를 매입해 경영권인수
상하이자동차	한국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외국 자

(上汽)		동차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사례로 꼽힘.
시노켄 (中化)	한국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켄, 한국 5대 정유업체인 인천정유와 매각 본계약 체결 (채권단 반대로 2005년초 무산)
五矿 (우광)	캐나다	캐나다 iNoranda와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인수협상 진행 (이후 단독인수 포기)
TCL	프랑스	프랑스 알카텔과 각각 지분 55%와 45%를 출자해 휴대폰 합작회사를 설립 (TCL이 합작회사 지분 45%를 총 넘겨받기로 합의함으로써 9개월만에 결렬)
상공재봉 (上工縫纫)	독일	독일 FAG 산하 Duerkopp Adler의 지분 94.98%를 인수. 향후 DA의 선진기술, 유통망 및 브랜드를 활용, 단기내에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선양선반 (沈阳机床)	독일	독일 SCHIESS AG사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자산에는 토지, 공장, 설비, 기술 및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상품 브랜드도 포함됨.

출처: "2004년 10대 해외 진출기업(2004十大“走出去”企业)", 「中国经济周刊」 2005년 1월11일 .

- 투자성공사례 중 한국의 IT 및 자동차기업 인수 2건이 포함된 점을 비롯, M&A 투자의 경우 기술, 브랜드 및 유통망 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자원 취득이 주요 목적
- 상기 사례에서 독일기업 인수 2건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2004년 초를 기준으로 중-독 무역규모는 미화 436억 달러로서 중-유럽 무역규모의 1/3 정도이며, 최근 독일 가족기업들이 매물로 나오에 따라 중국기업들에게는 인수호기 제공

-
- 1) 중국 상무부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4월28~29일 베이징에서 "2005년 중국기업 해외진출(走出去) 국제논단"을 개최함.
 - 2) 1979년부터 2002년간, 중국기업 FDI 프로젝트 누적 승인건수 50% 이상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함 (중국 상무부 자료참조).